

미국이 패배한 유일한 전쟁 “4세대 전쟁”

—Thomas X. Hammes의 「21세기 4세대 전쟁」을 읽고—



육군대학 전투발전처
중령(진) 신창섭

약 력

- 3사 30기 임관
- 국방대학교 전산정보 석사
- 이라크사단 12여단 정보참모
- 육군대학 참모학 교관/정보교리연구장교
- 현 수방사 전투정보과장

목 차

- I. 서 론
- II. 4세대 전쟁 개념(정의)
- III. 4세대 전쟁의 사례
- IV. 전례(사례)에서 나타난 4세대 전쟁의 특징
- V. 4세대 전쟁가들은 다양하고 기상천외한 수단을 활용한다.
- VI. Thomas X. Hammes가 주장한 미군의 4세대 전쟁 대비방안
- VII. 필자 독후감
- VIII. 결 론

I. 서 론

이 글은 美 해병대 예비역 대령 Thomas X. Hammes¹⁾의 저서 「The Sling and the Stone : On War in the 21st Century」의 한글 번역본(국방대학교, 2008. 12월)을 읽고 핵심적인 내용을 요약하여 소개하는 글이다. 글 후반부는 필자가 우리나라에서 4세대 전쟁에 대비할 필요성을 판단해 본 필자의견이다.

현대전쟁에서 군사력이 강한 군대가 반드시 승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과거 전쟁사를 통해 알 수 있다. 베트남 전쟁시에는 남베트남이 북베트남보다 약 2배 높은 경제력과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세계최강인 미국이 천문학적인 자금과 군사력으로 남베트남을 지원하고 있었지만 결국 북베트남에게 패했다. 1979~1989년 소련의 아프간 침공에서도 군사력이 월등히 높은 소련군이 미미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보유한 아프간 부족연합에게 패하고 말았다. 최근에는 미군이 참전한 이라크 전쟁에서 소규모로 활동하는 무장세력 공격으로 미군은 많은 사상자 피해를 입은 후 철수하게 되었다. 저자 Thomas X. Hammes는 어떻게 군사력과 경제력 측면에서 약소국가가 우승열패(優勝劣敗)²⁾의 군사적 상식을 깨고 강대국을 이길 수 있는지에 대한 해답과 그 대응책을 본 저서에서 다루고 있다.

현대전쟁의 양상은 군사적 수단에 추가하여 비군사적 수단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적 정치지도자의 전쟁수행의지를 굴복시켜 군사력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전술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양상으로 변하고 있다. 대부분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군의 최고 통수권자인 국가정치지도자(대통령, 수상 등)의 결심과 명령 하에 전쟁을 수행한다. 군사력은 정치의 무력적 수단이며 정치의 연속선상에서 볼 때 정치지도자의 전쟁수행의지가 있어야만 전쟁을 수행할 수가 있다. 그 정치지도자의 전쟁수행의지를 굴복시키기 위해 국내적으로는 국민들의 여론과 국제적으로는 주변국의 여론을 전쟁에 반대하거나 중지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우세한 군사력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전쟁을 포기하도록 강요하는 전쟁양상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주 1) Thomas X. Hammes : 예비역 미 해병대 대령이며, 대분란전(Counter-insurgency warfare) 전문가. 미 국방대학교 국가안보연구소 선임연구원으로 재직 중 「21세기 4세대 전쟁」 저술

2) 전투력이 우세하면 승리하고 열세하면 패한다는 전장원리의 기초를 말함(야고 0-1 「전술」, p.5-5).

저자인 Thomas X. Hammes는 1987~1990년까지 실제로 세계각지를 순회하면서 분란자³⁾들과 함께 작전을 수행하는 동안 분란자들로부터 느낀 점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군사력만을 신봉하는 미국 등 서방세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첫째, 분란자들은 눈에 보이는 군사력의 우위를 철저히 무시한다. 그들은 전투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데도 불구하고 투쟁을 지속하려는 강인한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죽음의 공포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군사력보다는 대의적인 이념을 믿고 있었으며, 이 이념을 만들어내고 유지 및 전파하기 위해 정치적 힘을 양성하고 의존하였다. 두 번째로 분란자들은 정치, 군사 및 군수 문제 등의 어떠한 문제들도 실로 감명받을 만큼의 창의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재능과 열성을 갖고 있다. 이것은 관료적이고 행정화된 서구식 군대가 죽었다 깨어나도 갖지 못할 신이 내린 재능이다. 그들은 서구식 군대가 이해하기 힘든 방향에서 문제해결을 시도하고 그들의 방법을 찾아내는데 성공했으며 정부군이 훈련하거나 예상하지 못한 전술과 기술을 사용함으로써, 왜 인간이 먹이사슬(Food Chain)의 최정상에 있는지를 증명해 보였다. 분란자들은 군사력의 상대적 비율, 전통적인 전술과 사고방식 등에 절대 얽매이지 않는다. 반면, 미군은 아직도 군사력만을 추구하는 전통식 전장만을 지배하려고 한다.

II. 4세대 전쟁 개념(정의)

4세대 전쟁이란 적 군대를 직접 공격하여 전쟁에서 승리하려고 하기보다는 적 정치지도자(대통령, 수상, 장관, 국회의원 등)의 전쟁수행의지를 공격하여 적 정치지도자가 군사력 사용 즉, 전쟁을 포기하게 만들려는 전쟁양상이다. 이를 위해 4세대 전쟁가들은 군사력에 의한 재래식 전쟁을 수행함과 동시에 적 정치지도자의 정치의지를 공격하기 위해 군사적·비군사적 수단(국제여론, 적 국민여론, 국제적 네트워크 등)을 모두 사용하는 4세대 전쟁을 동시에 수행한다. 최근에는 군사력이

주 3) 분란자(紛亂者) : 싸움, 풍파 및 혼잡을 일으키는 사람으로 본문에서는 4세대 전쟁을 수행하는 사람을 뜻함.

약한 국가나 집단들이 강대국과의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4세대 전쟁수법을 더 비중 있게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4세대 전쟁은 수년~수십 년까지 소요되는 장기전의 양상을 띠게 된다. 이러한 4세대 전쟁은 하루아침에 나온 새로운 전쟁수행방법이 전혀 아니며 과거에도 수행되어져 왔고 현대전에 있어 그 비중이 매우 크게 적용되는 전쟁수행방법으로 군사전문가들에 의해서 인식되고 있다. 4세대 전쟁은 중국 인민전쟁시 정치적 의지가 군사력 면에서 우세한 힘을 패배시킬 수 있다는 모택동의 개념에서 시작하여 베트남 전쟁에서 호치민에 의해 수정·보완되었으며 니카라과 내전과 팔레스타인 해방전쟁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이라크 전쟁을 거치면서 더욱 발전되어 왔다.

Ⅲ. 4세대 전쟁의 사례

저자인 Thomas X. Hammes는 4세대 전쟁사례로 중국의 모택동, 베트남의 호치민, 니카라과의 산디니스타 무장혁명조직, 팔레스타인인들의 인티파다(민중봉기) 등을 다음과 같이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1. 중국 인민해방전쟁간 「3단계 분란전」 (4세대 전쟁의 시초) 탄생

저자는 중국 모택동의 인민전쟁(1921~1949년)을 4세대 전쟁의 기원으로 보고 있다. 1912년 청 왕조 종식 후 장개석의 중화민국 정부가 탄생하였다. 1921년 중국 공산당이 창설된 후 1949년 중국에 공산주의 정권이 수립되기까지 장개석의 국민당 군대에 대항하여 모택동의 군대가 공산주의 혁명투쟁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농민을 핵심세력으로 사용하는 「3단계 분란전」개념을 개발하여 사용하였다. 모택동⁴⁾은 다음과 같은 3단계 분란전(紛亂戰)을 28년 동안 장기간 시행함으로써 정부군과의 전쟁에서 결국 승리하였다. 모택동의 3단계 분란전 개념은 다음과 같다.

주 4) 모택동(毛澤東/1893. 12. 26~1976. 9. 9) : 중국 공산주의 혁명가로 1949. 10월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를 수립함.

1단계는 정부군과의 직접적인 대결을 피하고 농민들을 공산당 편으로 끌어 들이는 전략을 취함으로써 정치적 힘을 구축하는 데 집중하였다. 특히, 농민들에 의한 정보 네트워크 구축과 지속적인 전투원 및 노동력 충원과 식량 제공체계를 공고히하였다.

2단계는 농민(대다수 인민)의 전폭적인 지지 및 지원을 기반으로 게릴라전 형태의 유격전을 전개하였다. 이는 단순히 정규전을 지원하는 보조적 차원의 수단이 아닌, 전쟁의 주 공격수단으로 발전시켜 적용함으로써 장기간에 걸쳐 국민당 정부와 정부군을 지치게 하여 그간 정부군이 우세를 점하고 있던 정치, 사회, 군사 및 경제적 측면의 세력균형을 공산당 쪽의 우세로 변화시켰다.

3단계는 공산당의 우세를 달성한 후 모택동은 최종적으로 그간 예비로 보유하고 있던 공산당 정규군을 투입하여 정부군을 격멸시킴으로써 승리를 달성하였다.

모택동이 채택한 인민전쟁은 전적으로 정규군에 의해 수행되고 유격전은 보조적인 수단으로만 사용되었던 종전까지의 전쟁수행 개념과는 확연하게 구별되는 중요한 진화였다. 특히, 중국 전역에 있는 농민들을 공산당 편으로 끌어 들임으로써 장기적인 유격전을 통한 중국내 각종 분란(紛亂)을 조성하여 국민당 정부의 정치, 사회 및 경제적 무능함과 부패성을 부각시키고 이에 대한 반대효과로 더욱더 많은 인민들을 공산당 편으로 끌어 들이는 분란전을 처음으로 제시했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다. 이 분란전은 4세대 전쟁의 시초가 되었다.

2. 베트남 전쟁간 「수정 분란전」으로 발전

1964년부터 1975년까지의 베트남 전쟁은 이전에 발생한 중국의 인민해방전쟁과는 상황적으로 차이가 있다. 중국 인민해방전쟁은 미국의 군수지원만을 받는 국민당 정부군과 농민을 기반세력으로 한 공산당 군대간의 자체 내전 성격이 강했다. 그러나 베트남 전쟁은 공산월맹이 자유월남과 자유월남을 지원하는 참전국들과 벌인 전쟁이었다. 즉, 월맹은 자유월남 군대와 싸우면서 동시에 이를 지원하기 위해 군대 등을 참전시킨 미국, 영국, 한국 등의 서방국가와도 전쟁을 해야 했다. 이때 월맹의 호치민⁵⁾

주 5) 호치민(胡志明/1890. 5. 19~1969. 9. 3) : 베트남의 공산혁명가. 인도차이나 공산당을 창설하고 1945년 북베트남에서 공산주의 건설의 기초를 마련한 후 남베트남의 공산화 중 사망함.

은 모택동의 농민을 기반으로 한 3단계 분란전 모델을 적용하면서 월남을 지원하는 미국 정치지도자의 정치적 의지를 굴복시키기 위해 국제적으로 반전여론 조성 및 선전전을 통하여 미국을 대상으로 정치전쟁을 하였다. 즉, 국제적 언론매체를 이용한 선전전을 통해 베트남을 부패한 월남정권을 타도하는 자유투사로 묘사하였으며 미군의 화력과 대규모 작전에 의해 피해를 입은 월남 민간인과 마을을 희생자로 선전하였다. 특히, 부패한 월남정권은 부유해지기 위해 미군의 지원품목을 빼돌리고 미군이 전사하는 것조차도 기뻐한다고 이미지 조작 및 선전을 하였으며 실제로도 월남정권의 부패는 매우 심하였다. 국내적으로는 월남지역의 베트남을 이용한 게릴라전으로 월남의 연합군을 공격하는 한편 월남인들을 대상으로 한 반정부 여론을 조성함으로써 부패한 월남정부를 배격하는 국내여론을 확산시켰다. 전쟁 막바지인 1968~1972년도에는 미군이 주도한 동맹군의 지속적인 승리에도 불구하고 전쟁에 대한 미국의 정치적 지지와 국제적 여론은 되돌릴 수 없을 만큼 악화되고 있었다. 더욱더 문제가 된 것은 언론들이 부정확한 기사들을 검토 및 편집하지 않은 채 생생한 모습 그대로 보도함으로써 반전여론을 더욱 부추겼다. 결과적으로 미국인들의 반전여론은 확고해졌고 개입을 그만두어야 한다는 국제적 압력도 증가되면서 미군은 철수를 하게 되었다. 미군 철수 직후 월남 내 반정부 세력과 시위 등의 확산으로 월남정부는 스스로 붕괴되고 월맹이 베트남에서 전국적으로 공산주의 정권을 수립하게 되었다.

3. 니카라과 내전간 「개정 분란전」으로 발전

1961~1979년간 니카라과는 구테타로 정권을 탈취한 후 장기집권을 유지하고 있는 군벌가문인 소모사 일족과 이에 대항하는 좌익무장세력인 산디니스타⁶⁾무장혁명조직간 내전으로 혼란스러웠다. 산디니스타 무장혁명조직은 기존의 정부를 무너뜨리고 공산주의 혁명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통해 그들의 혁명방

주 6) 산디니스타(Sandinista National Liberation Front) : 1961년에 결성된 니카라과의 무장 혁명 조직으로 1930년대 미국이 니카라과를 침공하였을 때 저항운동을 하였던 ‘아우구스토 세사르 산디노’의 이름에서 유래, 1979년에 니카라과의 소모사 가문의 독재체제를 무너뜨리고 1985년에 산디니스타 공산주의 정부를 공식 수립함.

법을 발전시켜 나갔다. 처음에는 도시혁명을 통하여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도시 게릴라를 조직하고 무장투쟁방식 위주로 시행하였으나 군사력이 강력한 정부군에게 처참히 무너졌다. 그 후 산디니스타는 모택동의 인민전쟁론을 적용해 보기로 했다. 정부군과의 싸움을 피하고 농민들을 기반세력으로 구축하려고 시도하였지만 조직원들의 대부분이 대학교육을 받은 중산층 도시태생인 산디니스타 무장혁명조직은 보수적이고 독실한 카톨릭 농민들을 포섭하는데 실패하였을 뿐만 아니라 농민들의 신고로 정부군에게 다수가 체포되었다. 다시금 패배를 맛 본 산디니스타는 1971년 유복한 가정 출신의 대학생들을 주축으로 해결방안을 찾기 시작했다. 그들은 카톨릭 신부가 주도하는 종교모임에 갔으며 종교적 토론에서 현 정부의 부패함을 토론의 화제로 바꿔 나감으로써 종교인들에게 세속의 부정부패에 대한 반발감을 인식시켰다. 그 다음해에는 자연스럽게 마르크스사상을 미화하여 인식시키기 시작했다. 1973년 초에 카톨릭 종교인들은 종교활동을 포기하고 그 대신 산디니스타와 함께 지하활동을 시작했다. 모택동은 농민들을 기반으로 인적네트워크를 구축했지만 산디니스타는 종교인들을 주축으로 한 인적네트워크 구축에 성공한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대학생 조직원들을 주축으로 농촌 및 산악지역이 아닌 대도시를 기반으로 종교단체, 정부관료 및 군 고위직을 대상으로 세력구축을 시도하였다. 특히, 국가경제를 구성하고 있는 대기업 등 각종 기업인들과 노동자들을 포섭하여 전국적인 파업을 조장하였으며 국외적으로는 각종 여론매체와 정치단체를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활동시키기 위하여 국내 온건과 정치세력들을 포섭하였다. 이러한 기반을 토대로 산디니스타 무장혁명조직은 국민들과 국제여론에 자신들은 공산주의자가 아니라 단지 부패한 정부를 타도한 후에 올바른 정부가 수립되기를 원하는 온건파라는 것을 확신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모택동은 농촌인민들이 게릴라를 지원함으로써 장개석 정부를 무너뜨렸으나 산디니스타 무장세력은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국민들의 순수한 저항활동(대모, 집회 등)에 즉각적으로 게릴라를 급파하여 저항활동 중인 다수의 국민들을 선전 및 선동함으로써 장기간 정부에 대항하도록 하였다. 특히, 부패한 정부에 반하여 도덕적 우위를 달성하기 위해서 국내적으로는 카톨릭 신부들과 기독교 그리고 미국의 청교도 조직들과 연계한 활동에 중점을 두었다. 산디니스타 무장세력은 모택동이 주장한 전쟁의 마지막 단계인 예비정규군을 투입하여 정부군을 무너뜨리는 단계를 선택하지 않았다. 이는 거대한 무

장세력 없이 정치적 노력만으로도 국민들의 저항활동과 국제적 여론을 확산시킴으로써 세력균형 관계를 변화시켜 자연스럽게 정부를 붕괴시키고 그들의 정부를 수립한 후 공산주의를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길 수가 있었기 때문이다.

4. 팔레스타인 해방전쟁과 인티파다⁷⁾[민간인 대 군인]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연합(UN)이 이스라엘만 국가로 인정함에 따라 요르단강 서안, 가자지구 및 동예루살렘 등지의 원주민인 팔레스타인인들은 국가를 되찾기 위해 폭력적 및 비폭력적 저항운동을 하고 있었다. 1987년에 발생한 이스라엘 지역의 팔레스타인인들에 의한 인티파다는 이전의 모택동의 분란전과는 직접적인 교리적 연계가 없이 팔레스타인 일반 국민들이 주도한 자발적인 비군사적 봉기로써 그간 주변의 여러 아랍국들이 성공하지 못한 강력한 이스라엘 군대와 맞서 비무장 군중들이 돌멩이 하나로 가지지구에서 이스라엘군을 철수시킴으로써 정치적인 승리를 이룬 역사적 사건이었다. 총과 전차로 무장한 절대 우세의 강력한 이스라엘 진압군에 맞선 팔레스타인인들은 군사적으로는 그들을 이길 수 없다고 판단한 후 제일선에 소년 및 소녀들을 배치 후 오로지 돌멩이 하나로 맞서게 하고 총뿐만 아니라 화염병도 일체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 인해 국제사회는 총과 전차로 무장한 이스라엘군을 잔인한 정복자로 인식하였으며 팔레스타인 군중들은 인도의 간디처럼 숭고한 애국자 또는 성직자로 묘사되었다. 국제사회의 여론은 팔레스타인을 지원하기 시작하였으며 이스라엘은 물론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미국을 비난하기 시작했다. 그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군 내부에서도 동요가 일기 시작하였다. 국가를 보호하기 위해서만 싸운다는 양심적인 군대의 전통을 체득해 온 젊은 이스라엘 병사들은 계속해서 10대들에게 고무탄을 사격하고 여성들과 아이들을 괴롭히는 군사작전과 이로 인한 정당하지 못한 이미지를 본인 스스로가 용인하기가 어려웠다. 결국 이스라엘군은 여성들과 아이들이 주도하는 대규모의 시위대를 처리하지

주 7) 인티파다는 봉기·반란·각성 등을 뜻하는 아랍어이다. 제2차 세계대전 후 국제연합이 이스라엘만 국가로 인정함에 따라 요르단강 서안, 가자지구, 동예루살렘 등지에서만 살게 된 팔레스타인인들이 이스라엘의 통치에 저항하여 일으킨 봉기를 말함.

못하고 그 속에서 허우적거렸다. 이스라엘군은 이러한 비무장 시위대에 대한 훈련이나 대응계획 같은 것들이 없었다. 1차 인티파다 기간 동안 팔레스타인인들에 의해 단지 이스라엘군 11명과 민간인 16명만이 사상을 당했다. 이처럼 이스라엘군의 피해는 극히 미미했지만 결국 그들은 국제사회 여론과 이스라엘 내 좌익세력의 압력에 의해 정치적으로 패배하여 이스라엘 영토 일부를 팔레스타인인들에게 양도하게 되었다.

5. 알아크사⁸⁾ 인티파다(이스라엘의 4세대 전쟁 접근법 사용)

팔레스타인인의 비무장 시민운동이었던 인티파다는 1993년까지 계속되었다. 이로 인해 세계적으로 팔레스타인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고, 그 결과 1995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⁹⁾는 오슬로에서 평화협정을 맺었으며, 1996년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수립되면서 일단락되었다. 하지만, 강경론자인 팔레스타인 해방기구(PLO)의장인 아라파트¹⁰⁾가 튀니지에서 팔레스타인으로 복귀하면서부터 상황은 악화되기 시작했다. 아라파트는 팔레스타인의 궁극적 목표를 이스라엘 국가 파괴로 설정하였으며 오슬로 평화협정을 반대하는 강경론자들을 규합하고 비무장 인티파다 이전의 군사력을 이용한 인티파다를 주장해왔다. 때마침 이스라엘의 강경론자이며 야당인 리쿠드(통일)당의 대표였던 아리엘 샤론¹¹⁾이 팔레스타인의 폭동을 유발시키기 위해 이슬람사원에 대한 안전점검을 구실로 2000. 9. 28일 경찰기동대 1,000명의 호위를 받으면서 이슬람교의 세 번째 성지인 알아크사 사원을 방문하는 대대

주 8) 알아크사 사원(Al-Aqsa mosque) : 이슬람교의 창시자 '무하마드'가 승천한 곳으로 이슬람에서 3번째로 성스러운 장소임. 2000. 9월, 아랍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야당 당수인 샤론이 무장병력을 동반하고 방문함으로써 팔레스타인인들이 격렬하게 항의하였으며 다음날 유대교의 성지 '통곡의 벽'을 찾아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 돌을 던지면서 양측의 무장 폭동으로 커지게 되었고 제2차 인티파다가 시작되었음.

9)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Palestine Liberation Organization) : 전 세계적으로 445만명으로 추산되는 팔레스타인인들을 대표하는 정치조직, 이스라엘 제거를 궁극적인 목표로 설정하고 각종 폭력 및 비폭력적 해방활동 등을 하고 있음.

10) 야세르 아라파트(Yasser Arafat/1929. 8. 4~2004.11.11) : 팔레스타인 해방운동가, 1996년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수반으로 선출됨.

11) 아리엘 샤론(Ariel Sharon/1928. 2. 27~) : 2001~2006년 이스라엘 총리 역임. 2006년 총리 재직시 뇌출혈로 쓰러짐. 현재 식물인간 환자로 투병 중임.

적인 행사를 가졌다. 샤론은 그가 원하는 팔레스타인의 반응을 정확히 자극시켰다. 팔레스타인인들은 거리로 나왔으며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아라파트는 무장군사세력을 투입하여 팔레스타인인들의 폭동을 무장폭동으로 발전시켰고 이스라엘은 이를 구실로 대규모 군사력을 투입하였다. 샤론과 아라파트 모두가 자국민들에게 급진적이고 폭력적인 활동을 부추기고 장려함으로써 폭력은 더 확대되었다. 세계인들은 이스라엘군에 대항하는 돌맹이를 가진 10대들을 다시는 볼 수 없었다. 또한 세계인들은 교육받고 분별 있는 팔레스타인 학자들과 대변인들이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불만을 말하는 것을 다시는 볼 수가 없었다. 대신 이스라엘군을 뒤에서 쏘는 무장세력 팔레스타인인과 아라파트처럼 수염을 기른 테러리스트들이 보내는 불분명하고 과격한 메시지만 접하게 되면서 세계인들은 팔레스타인인들에게 등을 돌렸다. 아라파트는 근본적으로 4세대 전쟁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동안 팔레스타인인들이 힘들게 얻은 이미지인 ‘잔인한 이스라엘 점령군에게 저항하는 평화로운 사람들’이라는 이미지를 명칭하게도 다시금 총을 들고 화염병을 던지는 테러리스트라는 이미지로 원상회복시켰다. 반면, 이스라엘의 샤론은 4세대 전쟁인 ‘돌맹이를 든 비무장 소년’이 국내·외 여론에 힘입어 막강한 탱크를 무력화시키는 것을 생생히 경험했다. 그는 팔레스타인 강경론자인 아라파트를 자극하여 무장세력을 사용하게 하였으며 이는 이스라엘이 정규군을 투입시킬 수 있는 암묵적 승인을 국제사회로부터 얻어내는 구실로 사용됐다. 즉, 1차 인티파다로부터 패배한 이스라엘은 4세대 전쟁에 대한 교훈을 이해하고 팔레스타인 강경론자인 아라파트와 이슬람 성지인 알 아크사 사원 방문을 이용하여 팔레스타인 무력폭동을 유발시키고 국제사회에 팔레스타인인들의 무력폭동을 분명히 인지시킨 후 이를 구실로 정규군을 투입하여 보복을 감행한 것이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비폭력 인티파다를 다시금 호소했지만 이미 강경파인 아라파트에 의해 모든 것이 통제되고 난 후였기 때문에 비폭력 인티파다는 사라지게 되었다. 이로 인해 국제 여론은 이스라엘의 무력진압의 당위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게 되었다.

6.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부족 연합 항쟁

1979년 소련은 아프가니스탄의 공산주의 정권을 지원함으로써 아프가니스탄을

공산위성국가로 만들기 위해 최초 3만명의 병력으로 아프가니스탄 침공을 감행했다. 아프가니스탄 부족들은 크게 4개 부족¹²⁾으로 구성되어 평시에는 내부투쟁을 하고 있다가 외부세력이 침입하면 내부투쟁을 중단하고 연합하는 전통을 갖고 있다. 1979년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시에도 부족들은 연합하여 10년간 매복과 암살, 사보타주¹³⁾ 등을 활용하는 전략을 펼쳤다. 또한 외부적으로는 민족 및 종교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이란, 파키스탄, 인도 및 우즈베키스탄 등의 주변국가와 미국으로부터 자금은 물론 각종 무기를 지원받아 무장조직을 운용하였다. 반면, 소련은 대게릴라 전략으로 화력과 기동에 의한 초토화 작전을 채택했다. 12만의 정규군과 수십억 달러의 전쟁자금을 가지고 의심되는 마을을 용단폭격하였고 관개시스템을 파괴하였으며 거대한 농지를 따라 수백만 개의 지뢰를 매설하였다. 이로 인해 아프가니스탄 인구의 약 40%가 난민이 되었으나 결국 장기간에 걸쳐 연합한 부족들의 소규모 게릴라전에 의해 소련군은 2만 5천명의 피해를 입은 후 패배를 인정하고 1989년 2월에 철수했다. 아프가니스탄의 부족연합이 승리할 수 있었던 요인은 첫째, 부족연합이 장기간 지속되어 각종 정보와 물자지원 등이 상호간에 원활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에 있다. 둘째, 소련군이 분산 또는 이동 등에 의해서 취약점이 노출되었을 때 매복과 암살 등의 활동을 장기간에 걸쳐 지속함으로써 전력을 손실시켰다는 것이다. 셋째, 종교, 민족 및 정치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들과 동맹을 맺고 각종 지원을 받았으며 특히,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와의 협력을 통해 서방국가들의 소련에 대한 곡물수출 금지, 첨단과학기술 수출 금지와 모스크바 하계올림픽 보이콧¹⁴⁾, 아프가니스탄 인접국인 파키스탄에 대한 군사 및 경제원조 재개 등을 시행함으로써 소련에 대한 간접적인 제재를 가하였다.

주 12) 아프가니스탄은 면적 647,500km²에 인구는 약 3천2백만명으로 부족구성은 파슈툰족(42%), 타지크족(27%), 하자라족(9%), 우즈베크족(9%)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13) 사보타주(Sabotage) : 고의적인 사유재산 파괴나 태업 등을 통한 노동자의 정의행위를 말함. 프랑스어의 사보(sabot/나막신)에서 유래된 말로 중세 유럽농민들이 영주의 부당한 처사에 항의하여 수확물을 사보(나막신)로 짓밟은 데서 연유했음.

14) 보이콧(Boycott) : 부당한 행위에 대항하기 위하여 정치·경제·사회·노동 분야에서 조직적·집단적으로 벌이는 거부운동을 말함. 1880년, 영국의 귀족인 C.C. 보이콧이 소작료를 체납한 소작인들을 토지에서 추방하려다가 C.S 파넬의 지도하에 단합한 소작인들의 배척을 받고 관리인 직위에서 물러난 데서 유래됨.

7. 이라크 전쟁과 이라크인 무장세력 공격

2001년에 발생한 9·11테러 후 미국은 자국과 세계평화를 보호한다는 명분하에 동맹국인 영국, 오스트레일리아와 함께 2003년 3월 20일 이라크를 공격하였다. 미국은 첨단기술로 무장한 군대를 이용하여 사담후세인 정권을 제거하고 공화국수비대 등 이라크 정규군을 격멸한 후 2003년 5월 1일에 종전을 선언하였다. 하지만 이는 미국의 일방적인 종전선언이었으며 미군의 피해가 속출하는 진정한 전쟁은 그 이후에 시작되었다. 미군과 동맹군에게 가장 큰 위협은 2가지였다. 하나는 적과 아군의 피아식별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었다. 무장세력들은 민간인과 미군부대에서 근무하는 현지 이라크인 등을 이용하여 각종 테러를 자행했다. 특히, 일반차량과 탈취한 미군 차량을 이용한 차량폭발테러는 위협적이었다. 둘째는 이라크인 무장세력들이 사용할 수 있는 각종 무기가 풍부하다는 것이었다. 이라크 내에는 미군과 이라크군에 의해서 유기된 각종 폭탄 및 불발탄 등이 풍부하였으며 무장세력들은 이를 이용한 급조폭발물(IED)¹⁵⁾ 공격을 활발하게 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미군과 동맹군 사상자는 종전 선언 후 매일 2~3명이 사망하였으며 헬기는 매월 1~2대가 추락함으로써 전쟁기간보다 더 많은 사상자를 발생시켰다. 이 외에도 이라크인 무장세력들은 국제적 매스컴 등을 이용하여 미군과 동맹군의 이라크군 포로학대와 민간인 학대 등을 선전함으로써 국제적 지지를 획득하려고 노력하는 동시에 미군과 동맹군 포로에 대해서는 방송을 이용한 공개참수를 함으로써 전의상실을 시도하였다.

이라크 내 다양한 인종 및 종교 그리고 주변국가와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이라크 내 무장세력들의 종류와 그들이 추구하는 목표는 다양하였으나 미군과 동맹군을 공공의 표적으로 선정하는 것은 동일하였다. 인종적으로는 아랍족, 페르시아족, 쿠르드족 및 투르크만족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종교적으로는 이슬람-수니파, 이슬람-시아파, 힌두교, 천주교 및 개신교 등으로 구분되어 각각의 이익을 추구하는 무장세력을 조직하였다. 국외적으로는 주변국인 이란, 요르단, 시리아 및 터키 등의 국가들도 자국에게 유리한 이라크 정세를 유지하기 위하여 이라크의 종교 및 인종

주 15) 급조폭발물(IED-Improvised Explosive Devices) : 각종 폭탄 유기물 등을 이용하여 제작한 인명살상용 폭발물

등과 연관된 무장세력을 지원함으로써 더욱더 이라크 국내정세를 혼돈스럽게 하였다. 미군과 동맹군은 이처럼 다양한 종교와 인종으로 구성되고 다양한 목적을 추구하는 무장세력들을 상대해야 했다.

IV. 전례(사례)에서 나타난 4세대 전쟁의 특징

저자인 Thomas X. Hammes는 중국 모택동의 분란전에서 시작되어 이라크전까지 진화된 4세대 전쟁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1. 군사력이 약한 국가일지라도 강한 국가를 패배시킬 수 있다.

4세대 전쟁은 화력과 기동 등 군사력의 우위가 승리달성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단기간에 종결되는 과거의 1·2·3세대 전쟁과는 다르게 정치, 경제, 사회 및 군사 등의 모든 가용 네트워크를 사용한다. 특히, 정치적 우위 또는 사회적 우위가 경제력 및 군사력의 우위를 패배시킬 수 있다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군사력과 경제력이 약한 후진국에 매우 적합한 전쟁이라고 할 수 있다.

후진국은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적자원이 많은 반면, 생계수단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명 경시풍조가 선진국에 비해 높으며 개인의 복지와 이상실현 보다는 국가적, 종교적 및 인종적 차원의 조직목표달성에 더 큰 의의를 두고 있다. 따라서 각종 자살폭탄 테러 등 테러지원 희망자가 줄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정이다. 특히, 오랜 기간 동안 찌든 가난, 분쟁 및 위험 속에서 국민들이 생활하여 왔기 때문에 수 년~수십 년의 장기간에 걸친 4세대 전쟁 속에서도 국민들의 생명 희생을 통하여 의연히 승리할 때까지 고통을 인내하면서 전쟁을 지속할 수 있는 자생력을 갖고 있다. 국제사회 또한 강대국보다는 정치, 종교 및 인종적 분쟁에서 생명을 던지는 약한 후진국 국민에 더 동정심을 갖고 더욱더 강대국을 배척하게 된다. 앞으로도 더욱더 많은 약소국들이 4세대 전쟁을 활용하여 강대국에게 대항할 것이다.

2. 적 군대를 직접 공격하지 않고 적 정치지도자의 심리를 공격한다.

4세대 전쟁은 적 정치지도자들의 심리에 직접적인 변화를 시도한다. 적의 정치지도자들은 국내적으로 국민들의 여론, 좌익정당의 정치적 공세 및 각종 언론매체 등과 국외적으로는 국제적 매스컴에 의한 여론 그리고 주변국의 여론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 4세대 전쟁가들은 정치, 사회, 경제 및 군사 등의 모든 가용 요소와 네트워크를 사용하여 국내적으로 뿐만 아니라 국외적으로도 자신들에게 유리한 여론을 조성함으로써 적국의 정치지도자들에게는 그들의 전쟁목표가 달성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게 하거나 달성되더라도 국제사회로부터 더 많은 것을 잃을 수 있다는 것 또는 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든다는 것 등을 확신시켜 전쟁의지를 좌절시킴으로써 군대를 철수하게 하거나 불리한 위치에서 정치적 협상을 하도록 강요하는 것이다. 따라서 4세대 전쟁은 여론정치를 하는 국가인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목표로 할 경우에 그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다.

3. 비군사적 요소(민간인, 매스컴 등)를 중요한 전쟁수단으로 사용하여 적 정치지도자의 심리를 압박하여 굴복시킨다.

4세대 전쟁가들은 군사적인 요소 이외에도 민간인, 언론매체 및 인터넷 등 비군사적 요소들을 병행 사용하여 적국의 국민정서에 영향을 미쳐 여론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적 정치지도자의 심리를 압박하고 전쟁의지를 좌절시킨다. 연약한 민간인이 죽음도 불사하고 강력하게 무장한 정규군에 돌맹이 등과 같은 미미한 도구로 대항할 경우 이는 매스컴에 의해 국내·외적으로 전파되고 국내·외의 각종 인도주의, 평화주의 및 반전주의 비정부조직(NGO)과 선진국의 인도주의적 정책 등에 의해 여론은 희생된 민간인을 동정하고 이를 지지하는 쪽으로 쏠리게 된다. 또한 적국의 좌익정당과 사업가 및 방송인 등 사회 유명인사들을 포섭하여 평화주의 및 인도주의를 내세워 반전여론을 일으킴으로써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정치지도자의 전쟁의지를 좌절시키기 위하여 노력한다. 일단 정치지도자의 전쟁의지가 좌절되면 아무리 강력한 군대를 보유하고 있어도 그 군대는 사용하지 못하는 무용지물이 되고 말기 때문이다.

4. 4세대 전쟁은 수 년~수십 년의 장기전을 추구한다.

미군이 2003년 5월 1일 이라크전 전쟁종료를 선언하였을 때 미군의 전사자는 486명에 불과하였다. 이는 단지 사담후세인과 정규군에 대한 전쟁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진정한 제4세대 전쟁은 그 이후에 시작되었다. 4세대 전쟁은 단기전을 원하는 적국의 기본적인 전쟁에 대한 개념과 계획을 무너뜨려 그 전쟁의지를 좌절시킨다.

손자병법의 “병귀승 불귀구(兵貴僧 不貴久)¹⁶⁾”에도 언급되어 있듯이 장기전은 국가의 패망을 불러일으킨다. 4세대 전쟁은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한 전쟁이다. 즉 전쟁을 장기간 강요함으로써 적국에게 이익보다 실이 많다는 것을 인지시켜 전쟁의지를 말살시키는 것이다. 미국은 단기간에 전쟁을 끝내려고 했다. 신속히 전쟁을 끝낼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베트남, 보스니아, 코소보, 아프가니스탄 및 이라크에 갔다. 각 분쟁에서 1년 정도 기간이면 승리 후 철수할 것이라고 국민들을 설득시키고 전쟁을 계획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4세대 전쟁은 장기전이다. 중국 공산당은 28년간(1921~1949) 싸웠고 베트남공산당은 프랑스로부터 해방 후 22년간(1954~1976) 싸웠으며 니카라과 공산당은 18년간(1961~1979) 싸웠다. 팔레스타인은 35년 이상(1975~현재) 싸우고 있다. 체첸 역시 10년 이상 싸우고 있다. 세계 도처의 4세대 전쟁가들은 아직까지도 장기전을 추구하며 싸우고 있다. 강대국(선진국)의 어느 국민들도 타국에서 자신들의 젊은이들이 수없이 죽어가고 돈을 물 붓듯이 쏟아 붓는 장기적인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 하물며 본국에서 그러한 전쟁이 일어난다면 과연 누가 이를 묵묵히 이겨내고 국가에 대해 지지를 보낼 것인가? 선진국민들은 안락함과 안전함에 습성화되어 있는 반면 희생과 인내력이라는 것은 없다. 4세대 전쟁가들은 선진강대국들의 이러한 약점을 최대한 이용하려 할 것이다.

5. 전투가 아닌 전쟁에서의 승리를 추구한다.

베트남전시 월맹군은 자신들이 전투에서 패배한 것까지도 전쟁승리를 위해 활용

주 16) 병귀승 불귀구(兵貴僧 不貴久) : 어떤 전쟁이든 속전속결로 끝내야 국가에 이롭다는 뜻. 손자병법 제2편 작전(作戰)에 수록됨.

하였다. 전투 후의 비참하게 사망한 월맹군을 앞에 두고 찍은 미군의 사진을 국제적인 반전여론에 활용하였다. 이라크전시 알카에다는 조직원들에게 전투에 패배하고 포로로 잡혔을 경우 구타를 당했다고 진술하라는 훈련을 시켰으며 자신들의 교범에도 이러한 사항을 반영하였다. 이러한 포로들의 거짓진술은 아부그라이브 교도소에서 미군에 의해 실제 벌어진 이라크군 수감자에 대한 학대와 더불어 반전여론을 불러일으키는데 큰 몫을 하였다. 4세대 적들은 신속한 전쟁승리에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는 것을 반드시 이해해야 한다. 그들은 장기적인 전략적 접근에 초점을 맞춘다. 그들은 전투의 승리가 아니라 전쟁에서의 승리에 초점을 맞춘다. 따라서 전투의 패배조차도 전략적 승리를 위해 각종 매스컴을 이용한 재료로서 훌륭한 가치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아직도 미군과 강대국들은 대규모 화력전과 첨단 CAISR을 이용한 전쟁을 추구하고 있다. 미군 「합동비전 2020」에서는 전쟁개념을 “전투에서 승리하면 적은 포기할 것이고 적이 포기하면 전쟁은 종결될 것이다”라는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베트남전과 아프가니스탄전, 이라크전에서 깨달은 것처럼 전투에서의 승리가 반드시 전쟁의 승리로 귀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

6. 끊임없이 실패를 통해 교훈을 얻고 새로운 해결방법을 창조한다.

“실패와 시련은 있어도 좌절은 없다.”라는 문구가 가장 잘 어울리는 인물들이 바로 4세대 전쟁가들이다. 모든 4세대 전쟁가들은 시련, 실패 및 실수로부터 좌절하지 않고 치밀하고 객관적으로 분석한 후 교훈을 도출하고 정치, 사회, 경제 및 문화 등의 다양한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창의적으로 해결방안을 창출하고 적용한다. 적용된 해결방안이 또 실패하면 다시 교훈을 도출하고 새로운 해결방안을 적용한다. 이러한 문제해결 방법을 승리할 때까지 그들은 지속한다. 월맹군의 호치민은 남베트남을 반으로 분할하기 위하여 처음에는 정규군을 투입하였으나 화력이 강한 미군에게 패하자 다시 소규모 게릴라전으로 전환하였다. 니카라과의 산디니스타 무장혁명조직은 최초에는 중국 모택동의 분란전 대로 “농민혁명”을 주도하였으나 실패하자 “도시 노동자혁명”으로 전환한 바 있다.

V. 4세대 전쟁가들은 다양하고 기상천외한 수단을 활용한다.

4세대 전쟁은 정치, 경제, 사회, 군사, 문화 등의 다양한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전쟁이다. 이는 군사력 및 경제력만으로 전쟁을 하려는 선진국을 이길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전쟁이다. 정치, 경제, 사회, 군사 및 문화 등의 다양한 네트워크에 의한 동시다발적인 공격은 적국의 국민들에게 전쟁으로 인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 등 각종 위협을 느끼게 하고 정치권에는 자국에 대한 국제적 이미지 및 신뢰 추락의 위기감 등을 유발시켜 반전사상을 불러일으킨 후 정치지도자들을 압박함으로써 군사력을 무력화시킨다. 반면 여론에 영향을 받고 각 부처의 업무 범위만을 고집하며 계층적인 보고를 통해 승인된 것만을 처리하는 선진국의 각 부처는 업무의 통합과 협조의 제한으로 이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을 하지 못한다. 4세대 전쟁가들은 다양한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창의적인 정신으로 다음과 같은 기상천외한 수단을 사용하고 있다.

첫째, 정치적인 측면은 국내적으로 좌익정당과 온건과 개혁정당 등의 야당을 포섭하여 반전여론을 불러일으키는 세력으로 활용한다. 좌익정당과 온건과 개혁정당 등은 근본적으로 집권여당의 정치에 반대함으로써 그들의 지지세력을 확보하고 집권하려는 속성을 갖고 있다. 역사적으로 국가의 흥망을 좌우하는 전쟁이야말로 야당이 여당을 공격하는 주요 표적으로 되어 왔다. 4세대 전쟁가들은 국론을 분열시키기 위해 여당의 정치에 반대하는 정당에 자금 지원 또는 종전 후 유리한 정치적 지위 보장 등을 은밀히 협약함으로써 포섭할 것이다. 베트남전시 공산당에 매수된 야당 대통령 후보인 유용신-쥬는 강력한 반전주의자로서 월맹과 월남의 평화통일을 공약하고 안보강화세력을 전쟁광으로 매도함으로써 국론분열에 앞장섰었다. 국제적으로는 적국의 우방국 야당이 반전여론을 불러일으키도록 교섭함으로써 우방국에 대한 지원을 감소시키거나 우방국 군대의 철군을 유도할 수가 있다.

둘째, 사회 및 경제적인 측면은 각종 비정부 조직(NGO)과 언론매체 및 방송인 등을 활용하여 반전여론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다. 일반적으로 비정부 조직은 국제 구호단체와 의료단체, 환경단체 등과 같이 근본적으로 반전의 특성을 띄고 있는 조직들이 많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단체들의 인사들을 포섭함으로써 반전여론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다. 예를 들어 전쟁 또는 전쟁위기로 인해 주식시장, 부동산시장

및 국제무역 등이 타격을 받았을 경우 단기간에 걸쳐 수십억 달러의 손실뿐만 아니라 무역마비로 인한 2차적인 국제적 소송으로 인해 국가경제는 파탄의 위험에 직면할 것이며 국내·외 각종 경제단체들은 반전여론에 적극 편승할 것이다. 또한 주요 항구 또는 공항지역에 대한 천연두 등 전염성이 강한 생물학적 공격은 그 지역을 마비시킴으로써 동원병력과 의료 및 구호물자의 보급을 차단시켜 치료가 시급한 국민들과 세계구호단체에 의한 반전여론 그리고 감염을 구실로 한 동원병력 기피자가 발생함으로써 정치지도자들의 전쟁의지를 좌절시킬 수 있을 것이다. 사람 뿐만 아니라 동물전염병 역시 국민들에게 혼돈을 야기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반전여론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구제역이나 광우병 또는 조류독감 등을 고의로 전염시킬 경우 군대 급식과 국민 식생활 및 경제에 미치는 혼란이 매우 클 것이다. 전염된 동물에 대한 매몰처리는 국제 동물 우호단체인 동물해방전선(ALF)¹⁷⁾과 같은 단체에 의해 강력한 비난을 받을 것이며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함으로써 국내 축산업을 붕괴시키려고 할 것이다.

셋째, 인터넷 역시 4세대 전쟁가들에게는 매우 유용한 전쟁수단이다. 국제은행의 인터넷 계좌를 통해 자금의 이동이 매우 용이하며 구글 위성사진 또는 약간의 돈을 지불하면 상업적 위성으로부터 표적지역에 대한 고해상도의 위성사진을 확보할 수가 있다. 또한 다양한 상업적 암호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인터넷과 휴대폰을 이용하여 지령을 전송할 수 있으며 최근에는 스테가노그래피(Steganography)를 이용함으로써 수십 장의 그림 중 한 장 또는 문장 끝의 마침표(도트, dot) 속에 자신들의 지령을 암호화하여 전송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이러한 암호문을 찾는다 해도 해독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며 해독을 했을 경우에는 벌써 적들이 행동을 하고 난 후일 경우가 많다. 또한 컴퓨터와 각종 인트라넷 및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 공격을 통하여 국가 기반시설을 마비시킬 수가 있다. 철도 및 지하철 통제시스템을 해킹함으로써 열차와 열차를 충돌시킬 수가 있으며 댐 통제시스템에 침입하여 수문을 개방시킴으로써 인근 도시를 수장시킬 수가 있다. 더 크게 나가면 중국의 공격에 대비하여 태평양 상공에 떠있는 미국 전략 핵폭격기에게 중국을 폭격하라는

주 17) 동물해방전선(ALF-Animal Liberation Front) : 1963년 영국에서 창설된 수렵방해협회에서 유래했으며 동물실험 및 상품화 등에 반대하는 국제단체임.

신호를 보냄으로써 제3차 세계대전을 야기시킬 수가 있다.

넷째, 사람에 의한 직접적인 테러 역시 고전적인 4세대 전쟁 수단의 하나이다. 우리는 통상적으로 좌익사상을 갖고 있거나 이에 동조하는 사람에 의해서만 폭탄테러 등이 일어난다고 알고 있다. 하지만 애국심이 강하고 정부를 적극 지지하는 사람에 의해서도 폭탄테러 등 각종 테러가 일어날 수 있다. 이라크전시 미군 마레즈 기지에서 자살폭탄공격을 한 것은 신원조회 등 모든 것이 안전하다고 판명된 이라크 현지 노무자였다. 하지만 무장세력들은 노무자의 가족을 인질로 하여 노무자에게 자살폭탄을 강요하였으며 가족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자살폭탄을 감행하였다. 적들에게 화학공격을 하기 위해서 또는 핵폭탄을 폭발시키기 위해서 화학탄을 쏘거나 핵폭탄을 쏘 필요는 없다. 또한 화학탄과 핵폭탄을 적국내로 위협을 무릅쓰면서 들여 올 필요도 없다. 그저 살충제 또는 건전지 공장에 근무하는 인력이나 핵원자시설에 근무하는 인력의 가족을 인질로 하여 하룻밤에 몇 시간 정도 유독가스를 누출시키거나 방사선을 누출시키기만 하면 된다. 1984년도 살충제와 건전지를 제작하는 인도 보팔공장의 유독가스 누출사고는 단순한 벨브 결함으로 일어났지만 단 2시간만에 주변 인구 2천명이 사망하고 60만 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으며 그 중 5만명은 영구적인 장애자가 되었다. 그 어느 나라도 생필품인 살충제와 건전지를 생산하는 공장은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공장에서 근무하는 사람을 확보할 수 없다면 핵폐기물 운반차량이나 살충제 원료 운반차량을 탈취하여 폭발물에 연결함으로써 직접적인 공격수단으로 활용하면 된다. 4세대 전쟁가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술개발 능력은 실로 무궁무진하다.

Ⅵ. Thomas X. Hammes가 주장한 미군의 4세대 전쟁 대비방안¹⁸⁾

Thomas X. Hammes는 미국이 4세대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 아래와 같은 점에 중점을 두고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주 18) 저자인 Thomas X. Hammes가 제시한 원문내용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저자의 관념을 바탕으로 필자가 임의로 예문과 보충설명을 추가하여 보완하였음.

1. 범국가적 차원의 관계부처 합동대응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9·11 테러 이전의 미국은 각 정부기관의 통합된 협조 시스템 없이 모든 기능이 분산되어 있었다. 각 정부기관은 서로 임무와 기능이 상충된다고 믿었으며 자신들의 업무체계 내에서만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으로 판단했었다. 하지만, 4세대 전쟁가들은 정치, 경제, 군사 등 전 분야에 걸친 다양한 네트워크를 중복해서 동시에 공격하기 때문에 4세대 전쟁에 대한 대응 역시 전 네트워크 영역에 걸쳐 협조되고 조율을 해야만 그 기능을 발휘할 수가 있다. 9·11 테러 이후 미국은 평시부터 민·관·군 통합된 범국가적 본토방어를 위한 기구로서 국토안보부(DHS)¹⁹⁾를 창설하였다. 국토안보부는 민·관·군의 22개 핵심기관 기능을 통합시킴으로써 미 본토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테러 등에 대한 예방활동과 비상시 대응 등을 준비하고 있다. 서로 다른 기관들의 일부기능을 하나의 목적을 위해 통합시킨다는 것은 매우 힘든 작업이다. 미 국방부는 본토방어를 위한 육군과 해군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통합시키는 것만 해도 45년 이상을 소비하고 있다. 국토안보부가 22개의 서로 다른 기관들의 기능을 통합시키는 데에는 더 많은 노력과 시간이 요망될 것이다.

2. 전투에서의 승리가 아니라 전쟁에서의 승리를 추구해야 한다.

전쟁은 국가와 국가가 하는 것이다. 국가 기능분야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및 군사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과거의 전쟁은 군사력이 크게 작용을 하였다. 하지만, 미국이 유일하게 패배하고 있는 현대의 4세대 전쟁은 군사력에 큰 비중을 두지 않는다. 군사력은 다만 국가의 국방을 담당하는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정치, 경제, 사회 등 국가 모든 기능에 종합적으로 타격을 입히는 4세대 전쟁이야말로 실로 국가를 대상으로 전 영역의 전쟁을 수행하는 진정한 전쟁가들이 선호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서구강대국처럼 군사력에 국방을 의존하는 국가일수록 모든 전쟁과 전투를

주 11) 국토안보부(DHS/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 미국 본토의 안전을 위해 2002년 11월 기존의 22개 정부조직을 통합하여 신설한 행정부처.

군사력의 비율로만 판단하려고 한다. 특히, 전투에서의 승리가 전쟁의 승리로 직결된다고 믿고 전투에서의 승리를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전투는 전쟁을 이끌어 가는 하나의 요소에 불과하다. 전투에서의 승리와 패배를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 전쟁의 승리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약 4만 명이라는 큰 피해를 입고 퇴각한 월맹군의 구정공세는 실패로 끝났지만 일시적으로 월남의 수도 하노이와 미국대사관을 점령하고 미군들에게 피해를 입힘으로써 미국이 패배할지도 모른다는 심리적 위축감과 위협을 미국 본토의 시민들에게 각인시켜 전쟁의 반전에 성공한 바 있다. 이스라엘의 막강한 탱크 앞에서 힘없이 사살되는 소년들은 물리적으로 “바위에 계란치기”식의 저항을 했을 뿐이지만 이러한 영상을 전 세계에 유포함으로써 반 이스라엘 여론을 조성하여 결국에는 한 발의 총알도 사용하지 않고 돌맹이와 소년의 희생으로만 이스라엘군을 철수하게 만들었다. 이는 전투에서 분명히 패배했지만 이를 활용함으로써 전쟁에서는 승리한 예라고 할 수 있다. 국가와 국가가 무력 충돌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전투가 아니고 전쟁이다. 전쟁은 군사력만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가용한 국력요소들을 이용하는 것이다. 아직도 순진하게 군사력만을 이용하여 전투에서 승리를 하고자 하는 정치지도자와 군인들은 4세대 전쟁가들에게 좋은 먹잇감이 될 것이다.

3. 첨단기술과 무기보다는 4세대 전쟁에 적합한 사람을 육성해야 한다.

미국이 최우선적으로 변해야 할 것은 첨단 기술만을 강조하는 것을 중단하고 4세대 전쟁에 적합한 「사람」의 육성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술은 4세대 전쟁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지만 사람은 할 수 있다. 현재까지 미군은 산업혁명 시대인 1890년대식의 인사제도를 변화시키는 것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었던 반면, 1990년대식의 무기체계를 변화시키는 논의에 대해서만 집중하고 있다. 「합동비전 2020」의 “네트워크 중심전”과 “군사혁신” 등과 같은 모든 강조사항들을 살펴보면 첨단기술에 관한 사항들뿐이다. 아직까지 4세대 전쟁을 유능하게 다룰 수 있는 전문가 또는 지도자를 육성하기 위한 논의나 연구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중국, 베트남, 니카라과, 팔레스타인, 아프가니스탄 및 이라크 등에서 미군은 우세한 첨단기술을 가지고 있었지만 4세대 전장터에서 어떻게 우세한 첨단기술을 적용시켜야 하는가

에 대한 개념(Concept)은 없었다. 4세대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4세대 전쟁을 위해 장기적으로 일관된 교육 및 훈련 시스템 속에서 육성된 지능적이고 창조적인 사람이 무엇보다도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의 인사평정제도와 경력관리제도 및 인력관리제도를 획기적으로 개혁해야 한다.

첫째, 인사평정제도를 탑다운식 평가제도에서 다면평가제도(360 degree system)로 변경시켜야 한다. 현재의 인사제도는 1890년대에 당시 산업혁명을 실현시키기 위해 프레드릭 테일러(Frederick Taylor)와 막스베버(Max Weber)가 제안한 이론을 당시 전쟁장관이었던 엘리휴 루트(Elihu Root)가 국경경비대를 산업군대로 진화시키기 위해 적용시켜 인사제도로 정착시킨 것이었다. 하지만, 그로부터 100년이 넘게 지났고 전장환경이 변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사제도의 근본은 바뀌지 않고 있다. 인사제도 중에서 가장 해로운 것은 탑다운식 평가체계를 중점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탑다운식 평가체계는 동일한 많은 물건을 신속히 생산해야 되는 산업혁명시대에는 적합한 체계였다. 군의 장병들은 지휘관 평가에 의해 진급이 결정되기 때문에 오직 한 방향인 상급 지휘관만을 바라보고 행동하고 결정하므로 철저하게 내부지향적인 장병만이 육성되고 유지된다. 주변의 실제 환경보다는 멀리 떨어져 있는 차상급지휘관에게 집중하게 되고 지휘관의도를 철저히 실행에 옮기려고 한다. 시시각각 변화하는 현실에 맞는 계획들을 신속히 수립하고 적용시키기 보다는 현실과는 거리가 있는 상급지휘관의 의도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기를 원한다. 진급을 하기 위해서는 상급지휘관과의 충돌을 피해야 하므로 본인이 인지한 현실을 상급지휘관에게 인식시키기 위한 위협과 부담을 감수하기 보다는 억지로 상급지휘관의 의도를 현실에 맞추려 한다. 계급이 높아갈수록 이러한 사람들만이 진급되고 이러한 사람들로 군은 구성이 되어 있다. 이는 위협 회피적이며 상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수동형, 통제형 및 내부지향적인 인물로만 군이 구성됨과 동시에 현실을 타파할 수 있는 창의력과 용기를 가지고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물을 단계적으로 군에서 몰아내는 시스템이다. 4세대 전쟁가들은 정부와 군의 이러한 시스템적 취약점을 매우 잘 활용해 왔다. 상하 의사소통의 획일화로 상급지휘관의 의도만 알면 하급지휘관의 작전계획을 간파할 수 있고, 테러분자들에 대한 정보가 수집되더라도 계층적인 군의 보고시스템과 의사결정시스템에 의해 많은 시간이 소비되므로 테러분자들은 행동의 시간측면에 있어서 군과 정부보다 더 빨리 행동

할 수가 있다. 따라서 군대의 탑다운식 평가제도를 다면평가제도(360 degree system)로 변경함으로써 상부만을 지향하는 인력이 아닌, 주변 모두를 지향할 수 있는 인력을 육성시켜야 한다. 다면평가는 평가받는 인원에 대해 상관뿐만 아니라 주변동료와 하급자 등의 전체적인 견해를 제공한다. 해당인원은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상관을 만족시키고 동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부하들을 억지로 부리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이끌어야 한다. 특히, 자신의 진급을 위해 경력관리와 평정관리에 힘쓰는 것이 아니고 진심으로 임무수행을 위해 부하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도덕적 청렴성을 유지시키는 등 자신을 희생시켜야만 부하들과 동료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상관을 속일 수는 있지만 동료와 부하들을 속일 수는 없는 것이다.

둘째, 경력관리제도를 실제 전투가 시행되고 있는 작전부대에서 더 많이 근무하는 것으로 변경시켜야 한다. 4세대 전쟁은 정치, 경제, 사회, 군사 등 다양한 네트워크 속에서 다양한 방법들이 전쟁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행정업무가 아닌 실제 다양한 지역에서 다양한 전투를 경험해 본 인원만이 신속하게 효율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것이다. 현재 미군은 비작전부대의 직책에 비해 작전부대의 직책비율이 더 적게 보직되는 비정상적인 현상으로 인해 작전을 수행하는 인력확보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부대들이 축소됨에 따라 잉여 인력들이 작전부대로 전환되지 않고 사령부로 흡수되면서 사령부 내의 장교 보직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 그 결과 작전부대에서 장기간 근무를 하지 않고 사령부와 국방부 및 합참 등의 행정부서에서 근무(특히 합동참모들)함으로써 진급을 빠르게 할 수 있지만 실제 전장을 배우는 데에는 상당히 적은 시간을 보내며 방대한 시간을 합참 내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브리핑 문서를 작성하며 이를 청취하는 등의 행정업무에 시간을 보낸다. 즉, 전투가 아닌, 그저 칭찬받는 사무원에 불과한 것이다. 따라서 사령부, 국방부 및 합참의 인력을 대폭 줄이고 실제 야전전투부대의 인원을 확보하는 한편, 야전전투부대 근무기간을 장기간 근무하도록 변경함으로써 4세대 전쟁수행에 적합한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셋째, 현재의 참모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영관 및 장군들의 비대해진 숫자를 과감히 줄이고 실제 작전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위관, 준사관 및 병들의 숫자를 증가시켜야 한다. 4세대 전쟁은 다양한 분야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예하부대에 하달되는 임무 역시 예측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유일한 해

결책은 말단 조직을 지휘하는 부대(특히 위관급)를 믿고 그들에게 과감히 결심수령을 위임하는 분권화 작전뿐이다. 이를 위해서는 영관 및 장군들의 비율을 50%로 감축시키며 특히, 영관은 기본적으로 현재의 행정업무 부대에서 과감히 전투를 수행하는 부대로 이동시킴으로써 4세대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영관, 위관, 준사관 및 병 등의 인력을 확보한 후 전문적인 교육을 시행해야만 4세대 전쟁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4. 장교교육은 외국 역사(전사), 문화(언어)에 관한 석사 및 박사도 육성해야 한다.

전쟁은 결국 첨단 과학장비가 아닌, 인간의 의지에 의해서 좌우된다. 그러나 미군은 사관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장교들의 기술적 교육에만 초점을 맞춘다. 몇몇의 장교들이 과학 및 공학 분야에서 석사 및 박사학위를 취득해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외국에 대한 역사(전쟁사)와 문화(언어) 등 해외 연구분야에서 석사 및 박사학위를 취득케 함으로써 지역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환경은 사람의 심리에 영향을 주게 되며, 각 국가별 자연, 사회 및 문화 등의 환경은 매우 상이하다. 적대국가와 잠정적인 적대국가만을 상대로 연구하는 것 역시 예상치 못한 분쟁지역이 수시로 발생하고 자국의 이익을 위해 적과 아군이 수시로 바뀌는 현 시대를 고려해 본다면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따라서 평시부터 세계 각 지역에 대한 전문가를 양성함으로써 국가의 근본이 되는 사람들의 의식과 정치형태와 여론형성 메커니즘, 그리고 이것들에 영향을 주는 주변환경요소 등에 대한 충분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두고 있어야 한다. 역사상 수많은 훌륭한 군사가인 그랜트(Grant), 리(Lee), 셔먼(Sherman), 패튼(Patton), 아이젠하워(Eisenhower), 니미츠(Nimitz) 및 할시(Halsey) 등은 모두가 당시의 신기술보다는 과거 전사에 더 심취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이다.

5. 4세대 전쟁양상에 대한 각본없는 즉각조치훈련을 숙달해야 한다.

4세대 전쟁가들은 정치, 경제, 군사 등 다양한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적국의 정치,

경제, 군사 등에 내재되어 있는 다양한 취약점을 공격함과 동시에 적국을 딜레마에 빠트려 허우적거리게 함으로써 시간과 정치적인 이점까지 획득해 간다. 전략적 차원에서는 국민의 안정과 평화를 추구하며 군사력의 사용을 극히 제한시키고 있는 적국을 대상으로 예상치 못한 국지도발을 행함으로써, 적국의 대응부대가 군사적으로 즉각대응태세를 유지하고 있더라도 적국의 정치지도자와 합참의 수뇌부들이 전쟁발발을 우려해 우왕좌왕하다가 반격의 기회를 놓치고 연이어 정치적으로도 타격 받는 상황을 조성할 수 있다. 작전적 차원에서는 포로학대, 강제징집 및 징발에 대한 부도덕성 및 정부의 부패 등을 국내·외 언론에 돌발적 또는 지속적으로 유포함으로써 적국의 정치 및 사회기구들이 국내여론과 국제여론의 반발에 즉각적 또는 지속적 대응을 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전술적 차원에서는 적국의 군복 또는 민간인 복장을 하고 공격함으로써 피아식별을 근본적으로 불가능하게 하거나, 적국의 군인 또는 민간인의 가족들을 인질로 포섭함으로써 자살폭탄 또는 댐 개방 등으로 공격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은 종전의 군사력만을 사용하는 정규전이 아닌 비정규전이 대부분이다. 정규전은 어느 정도 피아식별이 가능하고 교리와 지형 등을 고려한 군사적인 전술이 적용되며 군사력으로 해결이 가능하다. 하지만 4세대 전쟁은 전략적으로나 작전적으로 또는 전술적으로도 예측이 매우 제한되며 예측을 하더라도 군사적인 대응태세만 숙달하고 있는 보통의 국가에게 있어서는 군사력과 그 특성이 매우 다른 정치, 경제, 사회 분야에 대한 대응은 거의 불가능하다. 아무리 군사력이 강하고 대응태세를 잘 유지하고 있어도 정치적인 측면에서 취약하여 대응을 하지 못한다면, 그래서 군사력을 사용하지 못한다면 그 군사력은 무의미하게 될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치, 경제, 사회, 군사 등 전 분야에 대한 각본 없는 즉각조치 훈련이 필요하다. '정치지도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 시기에, 당장 한 달 후에 대통령 선거가 있는 이 시기에, 지금 당장 자신의 수도 한복판에 적이 화학탄 미사일을 1~2발 투발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합참의장은 믿었던 강력한 우군이 국제적 여론에 못이겨 지금 당장 철수를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사단장은 믿었던 예하연대가 좌익세력에 의해서 통제되어 반란을 일으킨다면 과연 어떻게 바로 조치하겠는가?' 라는 상황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훈련이 필요하다. 이는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 정치지도자에서부터 일선에서 전투를 벌이고 있는 전투원까지 속

달이 필요하다. 전형적인 군사적 도발은 4세대 전쟁에서는 유치원 수준이므로 다루지 않는다. 군사와 정치, 군사와 사회 등이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즉각적인 조치가 불가능한 수준의 공격이거나 해당 적국이 매너리즘에 빠져 있어 예측하지 못하는 분야에 대한 실로 수많고 다양한 취약점을 복합적으로 공격할 수 있다. 이러한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적 공격양상에 대한 각본을 인지하지 못한 채 훈련당시에 4세대 전쟁전문가로부터 훈련상황을 인지 받고 바로 즉각적인 조치를 하는 훈련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4세대 전쟁전문가 훈련팀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4세대 전쟁가들처럼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인원으로 4세대 전쟁 대항군부대를 구성해야 한다. 4세대 전쟁 대항군부대는 분란전 등 4세대 전쟁을 담당하고 있는 직책을 수행하는 군사전문가뿐만 아니라 반드시 정치, 경제, 문화 전문가와 이를 범죄에 활용하였던 개심한 전과자와 테러분자 등도 구성해야 한다. 현재 미군은 전술세대가 훈련할 수 있는 각본 없는 즉각대응태세 훈련장을 루이지애나주의 포트포크(육군합동즉응훈련센터)에 한 곳만 운용하고 있으며 아직까지 훈련부대의 능력을 충분히 향상시킬 수 있을 만큼 발전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전문적인 기관을 더 많이 설립하고 교육체계 역시 더 많은 보완이 필요하다.

Ⅷ. 필자 독후감

필자는 Thomas X. Hammes의 「4세대 전쟁」을 읽으면서 ①북한은 4세대전쟁수법을 사용할 것인가? ②우리나라에서 북한이 사용할 수 있는 4세대전쟁의 형태나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③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게 되었다.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필자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북한은 4세대전쟁과 그 수법 등을 알고 있고, 사용할 것인가?

북한은 베트남 전쟁 및 코소보 전쟁 등 총 53개 국의 각종 전쟁과 분쟁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해 왔다는 것을 지난 2000년 4월 5일 조총련 기관지와 조선신보 등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시인하였다. 이는 북한이 세계 각국의 전쟁과 분쟁에 대한

교훈분석을 통해 한·미 연합군에 대비한 북한의 군사이론체계와 용병술을 보완해 왔음을 말해줌과 동시에 4세대 전쟁 역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체득해 왔으며 이에 대한 교훈을 충분히 용병술에 적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세부적인 정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의 군사이론체계와 용병술은 기본적으로 마르크스와 레닌주의 민중봉기혁명과 4세대 전쟁의 창시자인 모택동의 전쟁관을 기반으로 하여 비폭력적, 폭력적 수단을 모두 포함한 전쟁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또한, 3대 혁명 역량 강화론(북한내 혁명역량 구축, 남한내 동조혁명역량 구축, 국제적 지원혁명역량 획득) 역시 4세대 전쟁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둘째, 북한은 코소보, 앙골라 및 아프간 등 세계 각국의 분쟁국가에 게릴라 양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군사교관과 고문단을 활발히 파견하였으며 단기간에 민간인을 훌륭한 게릴라로 양성시킴으로써 찬사를 받은 바 있다. 이는 김일성의 항일투쟁 유격전 및 6·25 전쟁 당시 빨치산 유격전의 교리를 더욱 발전시켜 해외에서 적용시킴으로써 4세대 전쟁의 원동력을 제공한 셈이다.

셋째, 북한은 세계 각국의 전쟁과 분쟁에 대한 교훈을 도출하여 즉각적으로 용병사상에 적용시키고 있다. 최근에는 걸프전(만전쟁) 연구소를 잠정적으로 설치하여 장차 미군이 한반도에서 전쟁시 걸프전 수법을 이용할 것을 가정하여 공중정밀타격, 화력전 및 기갑/기계화 작전에 대비한 대응책 연구에 주력한 바 있다. 북한조선중앙방송에서도 이라크 공화국 수비대와 민병대의 게릴라 전법과 이로 인해 발생한 미군의 피해상황을 집중 보도한 적이 있다.

넷째, 국제적 범죄조직과 테러단체 그리고 분쟁세력들에 대한 무기판매, 위조지폐생산, 위조약품 생산 및 마약밀매 등을 통해 지속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북한은 최근에도 무기수출을 통해 매년 5~10억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는 등 각종 국제범죄활동을 통해 국제적 범죄조직 및 테러단체와 협력함으로써 유사시 이들 세력을 활용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다.

다섯째, 현재에도 북한은 4세대 전쟁을 수행하고 있다. 국내적으로 좌익세력을 양산하고 국제적으로는 조총련 등 각종 지원 세력을 구축하고 있으며 특히, 천안함 피폭사건과 연평도 포격도발 등을 자행함으로써 국내외적 관심을 이전의 핵 관련 문제로부터 전쟁에 대한 공포분위기로 전환시켜 국민들에게 전쟁에 대한 두려움을

조성시킨 후 다시 남북간 대화를 강조하는 화해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국민들과 정치지도자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북한의 4세대 전쟁은 전시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평시부터 이미 수행되어지고 있는 현재 진행형 전쟁인 것이다.

2. 한반도에서 남·북한 전쟁발발시 북한이 사용가능한 4세대 방식의 전혀 새로운 전술은 어떤 것들을 예상해 볼 수 있는가?

북한은 평시인 지금 이 시각에도 4세대 전쟁의 전술을 이용하여 전쟁을 하고 있으며 전시에선 더욱더 4세대 전쟁전술을 활발히 사용할 것이다. 북한이 평시와 전시에 주로 사용 가능한 전술은 아래와 같다.

가. 평시부터 사용 가능한 전술

1) 정치지도자와 행정부 주요인사 및 군부대 주요인사의 가족 또는 친인척을 납치 후 해당 인사를 포섭함으로써 주요 정책과 행정업무를 북한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시킬 수가 있다.

2) 남한 행정부의 각 부처 내의 좌익세력과 동조자를 활용하여 정부 부처간 협조와 정책추진을 방해하고 부처 이기주의를 추구함으로써 통합된 전력발휘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것이다.

3) 좌익정당과 급진개혁세력 등의 집단에게 전쟁 종료 후 각종 이익제공을 미끼로 하여 정부여당에 대한 강한 반대세력으로 활용할 것이다.

4) 남한 내 각종 TV와 라디오 방송국을 무력으로 통제하거나 근무인원을 협박 또는 포섭하여 북한에 유리한 유언비어 및 반전기사를 방송하게 할 수 있다.

5) 미국 내 야당, 각종 종교단체, 평화단체와 인권단체의 주요인사를 포섭하여 여당을 정치적으로 공격하고 반전여론을 부추김으로써 한반도내 미군감축과 철수등을 유도할 수 있다.

6) 남한 내 각종 종교단체, 교육단체 및 노동자 조합 등의 좌익세력에게 이익제공을 미끼로 동조세력으로 포섭함으로써 종교인들과 교사, 학생 및 노동자들에게 정부 및 미군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게 할 수 있다.

7) 금번 연평도 포격도발시 전쟁위기로 인해 국내 증시가 급하락한 바 있다.

이처럼 전면전이 아닌 평시 국지전만으로도 국가경제를 파탄위기로 몰고 갈 수 있다.

8) 서해안과 동해안 일대의 무역상선 해상교통로에 고의로 기뢰를 유기시키고 시인하지 않음으로써 해상을 통한 무역로를 봉쇄시킬 수가 있다.

9) 탄저병과 같은 전염성과 치사율이 강한 생물학 무기를 미사일 또는 선박 운반을 통해 인천과 부산 등 주요 공항과 항만지역에 살포함으로써 추가적인 단 한 명의 특수작전병력과 미사일 공격 없이 장기간 그 기능을 폐쇄시킬 수가 있을 것이다. 평시에는 각종 무역과 인원 수송을 제한시키고 전시에는 미 증원병력 전개와 국제 구호물자를 원천적으로 차단시킬 수가 있다.

10) 인구가 밀집된 지역 내 위치한 살충제 및 건전지를 생산하는 화학 공장의 인부를 협박하거나 포섭하여 야간에 유독가스를 배출시키거나 이동 중인 화학약품 또는 핵 폐기물을 탈취하여 주요 군사도시, 군수산업지역, 공항 및 항만지역에 폭발물 등을 이용하여 살포함으로써 대량의 인원살상과 물자의 피해를 줄일 수가 있다.

11) 농촌에는 농작물 해충과 동물 병원균을 살포함으로써 농업과 축산업을 근본적으로 무너뜨려 국민들과 국군의 식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상황을 조성할 수 있다.

나. 전시에 주로 사용 가능한 전술

1) 북한 내 주요 군사시설 및 군수공장에 군인과 노무자가 아닌, 북한 민간인 노약자를 고의로 위치시켜 아군 항공기와 포격에 의한 사상자 발생시 국내·외 언론에 유포시킴으로써 반전사상을 불러일으킬 것이며 특히, 한국군에게는 무고한 동족 민간인을 살해했다는 양심적 가책을 느끼게 함으로써 군의 일탈을 조장할 것이다.

2) 인구나 장비가 밀집한 대도시 지역에 지속성 화학탄 또는 생물학 공격을 함으로써 아군 동원병력과 물자를 원천적으로 차단시킬 것이다. 국민들은 치료를 위해 아비규환이 될 것이며 세계구호단체들은 즉각적인 전쟁 중단과 국가적 차원에서 구호에 더 힘쓰라고 정치지도자를 압박할 것이다. 부상을 당한 국민들과 물자들은 당연히 동원이 될 리가 없으며 질병에 대한 공포심은 타 도시에 전파되어 국민들은 전쟁의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할 것이다.

3) 남한 내 인구가 밀집된 대도시와 산악지역을 근거지로 아군 및 미군복장과 민간인 복장으로 위장한 북한군 특수작전부대가 비정규전 활동을 할 것이다. 특히,

정비공으로 위장하여 지하공동구와 지하철 및 댐 등을 폭파시켜 혼란을 유도하는 공격이 다수 발생할 것이다.

4) 포로가 된 북한군은 사전에 교육을 받은 대로 조직을 형성한 후 6·25 전쟁시와 동일하게 폭동을 일으켜 후방의 혼란을 조성할 것이다. 또는 국내·외 여론을 통해 확대받았다고 거짓으로 알림으로써 한국군을 모략할 것이다.

5) 미군과 모습이 비슷한 러시아, 유럽, 쿠바 및 미국인 등을 고용하여 복장 및 무기 등을 미군으로 가장시켜 전시 주민통제 등을 하는 척하다가 남한주민을 사살하거나 또는 한국군과 협조를 하는 척하다가 한국군을 공격함으로써 주민과 한국군에게 반미사상을 강력히 불러일으킬 수가 있다.

6) 인터넷과 재래식 시장 등을 이용하여 사제폭발물 원료를 획득 및 제작하거나 군부대의 무기고 또는 무기운반차량을 탈취함으로써 다양한 공격수단을 획득하여 공격할 수 있다.

7) 과거 여순반란사건과 같이 군 내에 좌익세력을 침투시켜 군 장교 출신간 갈등과 장교와 부사관과의 갈등 및 간부와 병과의 갈등을 이용하여 군 내부의 분열을 획책할 수 있다.

8) 일본에 대해 핵 및 미사일 위협 또는 공격으로 일본을 한반도 전쟁에 참전시킨 후 남한 국민과 군대에게는 동족의식을 불러일으키는 심리전 활동으로 일본을 공동의 적으로 간주하게 하고 남·북한이 힘을 합쳐 일본부터 물리치자는 여론을 조성함으로써 북한에 대한 적대의식을 희석시키려 할 것이다.(과거 일본군을 공동의 적으로 전쟁을 했던 중국공산당의 국공합작과 유사함)

9) 장거리 핵미사일을 이용한 일본과 미국본토에 대한 위협으로 미군의 철수 요구와 미국 내 반전여론을 일으킬 것이다.

3. 현재 대한민국의 제4세대 전쟁에 대한 인식수준과 이에 대비한 범정부 차원의 대비는 있는가?

4세대 전쟁은 군사력 수준에서 약자였던 중국 공산당, 베트남 공산당 등에 의해서 개발되고 발전되었다. 이를 지켜보고 직·간접적으로 참여를 해온 북한 역시 4세대 전쟁에 있어서는 베테랑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미군을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4세대 전쟁에 대한 개념과 위협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미군의 「합동비전 2020」은 아직도 군사력을 이용한 전투에서의 승리가 전쟁을 종결짓는 것으로 개념이 정립되어 있다. 미군은 그나마 다행히도 지난 9·11사건 이후 미국 본토의 안보를 위한 범정부기관인 국토안보부를 창설함으로써 표면적으로나마 본토 내 각종 테러 등의 위협에 대비하여 행정부 각 기관의 통합을 추구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전쟁은 국방부와 군만이 준비하는 것이라고 민·관·군 모두가 대부분 인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정치지도자와 정계의 주요인사 그리고 행정부와 국민들 모두가 4세대 전쟁의 치명적인 위협성을 똑바로 직시하고 민·관·군이 통합된 범정부차원의 조직 창설과 각종 대비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4. 무엇을 준비(대비)해야 하는가?

가. 일반국민

북한주민보다 상대적으로 편안함과 안락함에 습성화되어 있는 국민들은 한반도에서 전쟁 발발시 매우 위험하고 힘들며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생활을 수십 년 장기간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특히, 투철한 반공의식을 견지해야 하며 정부의 전쟁수행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구 서독 주민들처럼 가정마다 전시를 대비한 비상식량을 비축하고 방독면과 보호의 등을 구비하며 마을 단위 비상연락망을 조직함으로써 수상한 외부인 발견시 즉시, 군과 관에 신고해야겠다. 무엇보다도 정부에서 방송하는 대중매체를 신뢰 및 의존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대중매체와 각종 유언비어에 끌려 다니지 않아야겠다.

나. 정치지도자 및 정부

정치지도자는 4세대 전쟁이 정치, 경제, 사회, 군사 등의 다양한 네트워크를 활용한 전쟁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전쟁은 군대가 도맡아서 하면 되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다.'라는 잘못된 시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전쟁의 지속성과 승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안보를 보장하기 위한 민·관·군이 통합된 범정부기관을 창설해야 한다. 현재 국가정보원이 그 기능을 일부 담당하고 있으나 국정원장이 정부 각 부처장관

들을 통합시키는 기능을 하기에는 매우 제한된다. 따라서 미국의 국토안보부처럼 대통령 안보보좌관이 국가안보부의 장관을 겸임하고 그 예하에 국가안보를 위해 민·관·군의 요원으로 통합 조직된 부서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더불어 읍, 면, 동 단위 및 직장단위 소규모 민·관·군 통합방위체제를 강화시킴으로써 좌익세력의 침투를 원천적으로 차단시키는 각종 대비책을 강구해야겠다. 특히, 그 무엇보다도 국민들에게 한반도에서의 4세대 전쟁에 대한 양상과 위협 등 안보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유사시에 국민들이 장기적으로 정부의 전쟁수행에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국민적 공감대를 평상시부터 형성해야겠다.

다. 군

군은 4세대 전쟁을 대비하는데 있어 그간 군사대비만이 유일한 군의 책무라는 협소한 의식을 깨고 안보에 대한 새로운 주체로서 책임을 다해야겠다. 4세대 전쟁은 정치, 사회, 경제, 군사, 문화 등 국가를 이루고 있는 다양한 요소를 수단으로 활용하여 공격한다. 군사분야는 4세대 전쟁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군은 안보의 주체로서 정치, 사회, 경제 등의 국가기반요소들이 적의 공격을 받아 국가의 안보가 위급할 시에는 즉각적으로 대처를 해야 한다. 미국의 국토안보부는 설립초기 4개의 국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으며 그 예하 국장 중 3명이 육해공군의 2성~3성 장군으로 편성되어 있고 그 예하에 FBI, CIA 및 각종 시민단체로 구성된 부서가 속해 있었다. 즉, 군이 안보의 주체로서 평시부터 민관의 주요기관을 통제하고 상호협조를 시키고 있었다. 국방부도 안보의 주체가 되는 부처로서 범정부차원의 민·관·군 통합기관이 설립될 경우 적극적으로 우수한 고급장교를 부서의 장으로 파견함으로써 평시부터 북한의 4세대 전쟁에 대해 주도적으로 대비하는 일임을 담당해야겠다. 합참에서부터 각개 전투병사까지 4세대 전쟁이 멀리 미래에만 발생하는 전쟁양상이 아니고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의심해 볼 수 있는 전쟁이라는 것을 명확히 이해시킴으로써 정책부서, 교육기관 및 야전에서 자발적으로 4세대 전쟁을 대비할 수 있는 붐을 조성해야겠다. 특히, 미국이나 북한처럼 세계 각국의 분쟁지역에 관찰관 또는 간접적인 작전요원을 참전시켜 실제 4세대 전쟁을 체험함으로써 그 전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군이 안보의 주체로서 4세대 전쟁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정치지도자들과 국민들

에게 4세대 전쟁개념하의 국가 총력전 개념을 적극 홍보함은 물론 범국가적으로 국가안보를 위한 각자의 역할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대 국민홍보와 설득을 하는데 있어서 군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하겠다.

Ⅷ. 결 론

북 한처럼 뛰어난 4세대 전쟁가들은 한미 양국에게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대규모 재래식 군대와 핵무기 및 화생방무기 등을 활용한 전면전에 대비하는 전략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정치, 경제, 사회 등의 다양한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한미 양국의 정치지도자를 공격하는 4세대 전쟁을 대비하는 전략을 선택해야 하는가? 하는 해결하기 어려운 딜레마를 주고 있다. 평소부터 고전적인 전면전과 4세대 전쟁의 위협 모두를 대비한다는 것은 국가 조직과 예산 및 인력 측면에서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하지만 북한이 4세대 전쟁을 이해하고 있다고 가정할 때 북한 김정일 집단은 이러한 어려운 측면을 노려서 공격할 것이다. 6·25전쟁시 전면남침의 패배를 뼈저린 교훈으로 삼은 북한은 반드시 이를 보완하고 발전시킨 전략을 이용할 것이다. 4세대 전쟁은 그간의 북한의 동향을 분석해 볼 때 지금 당장 북한이 국지전과 전면전을 일으켰을 때 반드시 사용하는 전쟁수법이라고 확신한다. 이를 인지하고서도 현재 민·관·군의 통합이 제대로 되지 않고 편안함만을 추구하는 국민들 정서에 못 이겨 국가적 대응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난 6·25 전쟁과 같은 일요일 아침의 전면적 남침 기습이 아닌 국가의 기반을 흔들어 놓는 4세대 전쟁의 기습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참 고 문 헌

1. Thomas X. Hammes, 「제4세대 전쟁(The Sling and Stone)」, 2004.
2. www.vietvet.co.kr 「베트남전 홈페이지」

10년 젊어지기 회춘(回春) 십계명

자연의 봄은 순환해서 계절 따라 돌아오지만
인생의 청춘은 한 번 가면 다시 오지 않는 것이 자연의 순리임이 틀림없다.

1. 하루 10분 명상을

생각의 근육을 단련하라는 것으로 두뇌를 젊게 유지하는 특효약이다.

2. 자주 빨리 걸어라.

빨리 걸기는 경제적이면서 효과적인 유산소 운동(하루 30분 이상)

3. 물 제대로 마셔라.

하루에 30분 동안 3컵 3번 마시는 물은 보약과 다름없다.(30 3 3법칙)

4. 맘껏 웃어라.

웃음은 행복 바이러스로 건강증진의 첩경이다.

5. 수수하게 입어라.

스포티하고 심플한 패션이 젊고 돋보이게 한다.

6. 자외선을 피하라.

자외선은 피부 노화에 영향을 미친다.

7. 피부는 촉촉하게

피부 건강을 유지하는 화장품 등을 사용한다.

8. 리모컨은 자녀에게

자녀들이 즐겨보는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트랜스 지수를 높이자.

9. 대중문화를 즐겨라.

자기 취향을 숨기지 말고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정신건강에 좋다.

10. 디지털을 배워라.

각종 첨단 전자제품의 사용법은 요리보다 쉬우니 두려워 말고 배워라.